



유럽총연합회 뉴스레터 KUAA EUROPE

Erbacher Str.2, 65197 Wiesbaden, Germany · E-mail : info@kuaa.eu

이명박 대통령 유럽총연 관할 중동 4개국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등 유럽총연 관할지역인 중동 4개국을 순방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 3국을 방문해 이란 제재 이후 닥쳐올 원유 수입선 확보에 나섰고 터키를 국민방문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첫 행선지였던 터키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인구 7,400만의 대국으로 최근 아랍권과 중앙아

시아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6.25때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맹맹이며 경제적으로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나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 방문이며 지난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이후 7년만의 대통령 방문이다.

200여명이 참석한 동포간담회에서 터키 교우회 회장이자 현 터키한인회 회장인 김성렬(독문 73) 교우가 터키 동포들을 대표해 환영사를 하여 터키

교우회에게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김성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의 리더국가로 성장하였으며, 국민의 단합된 힘을 통하여 리더국가로의 위상을 확실히 하는데 터키 한인도 이에 앞장서겠다고 하였으며, 또 터키 한인들의 공동 관심사인 한-터 FTA 체결, 한-터 양국 사회보장협정, 그리고 터키 내 한국 정규학교 설립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및 한류의 세계화 등 국격의 상승을 소개하였으며, 터키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한-터간 FTA 체결의 가능성을 소개하였다.

유럽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터키에서 큰 경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터키 한인들이 교두보가 되어 양국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세계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사진제공 : 터키교우회

영국 교우회 이충근 회장 선출



이충근 (경영 82) 신임회장

영국교우회 김형채 (정외 82)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충근교우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영국교우회의 회장임기는 1년으로 매년 신년하례식이나, 송년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해온 바, 지난 12월 송년회에서 2012년 한 해를 수고할 신임회장을 선출하였다.

신임 이충근회장은 영국교우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교우회의 친목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아울러 각 교우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교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12년 영국교우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영국교우회는 1974년 설립된 이래 평균 월 1회의 정기 모임(월례 및 분기 운동 그리고 반기 가족 모임)이외에도 업종별 수시 모임을 통해 교우간 친교를 도모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영국주재 후 귀국한 한국 내 명예회원(OB) 들과 공식 모임도 오랜 전통과 활발한 모임으로 영국교우회와 함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한 가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교우회 신년회 개최



족들도 함께 자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탈리아교우회는 올해에는 이러한 행사를 자주 마련해 교우들뿐만 아니라 교우 가족들간의 교류와 친목을 다지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밀라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탈리아 교우회 활동을 로마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우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우회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도 이루어졌다.

이탈리아교우회(회장 여중열 일본 83)는 1월 28일 신년모임을 갖고 교우들간의 친목을 다졌으며 아울러 2012년 이탈리아교우회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설날에 즈음하여 열린 이번 신년회에는 각 교우 가정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신년회 자리에서 함께 만두를 빚어 교우들과 가족들은 설날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교우뿐만이 아니라 교우가

터키



터키 교우회 신년모임 가져

터키교우회(회장 김성렬·독문 73)는 1월 28일 신년회를 개최하고 임진년 2012년을 힘차게 출발하였다.

이번 신년회에는 한국 또는 타국으로 이동하는 교우와 새로 터키에 부임한 교우들이 모두 참여해 성대하게 치러졌다.

터키교우회는 2006년 설립되어 그동안 10여명의 교우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김성렬 회장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이제 21명의 교우가 활동하는 중견 교우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터키 교우회는 교우들이 각 회사를 대표하고 있고 한인 사회의 중심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조충구(법학 81) 교우가 한국지상사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터키교우회는 이러한 각 방면에서의 선도적인 활동과 더불어 교우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연 1회 문화여행을 떠나 교우는 물론 교우가족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터키 교우회 신년 모임



이탈리아 교우회 신년 모임

교우회 소식

교우회 신년 교례회 개최



1월 3일 교우회 신년교례회

2012년 새해 교우회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신년교례회가 지난 3일(화) 오후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이양섭(경영57) 교우회장, 김정배(사학60) 법인 이사장, 김병철 모교 총장 등 교우회와 모교를 대표하는 중요 인사가 한 자리에 모였으며, 연만희(경제49) 고문, 박중구(정치51) 고문, 이종남(법학57) 고문, 이상일(경영57) 고문 등 원로 교우들과 허창수(경영67)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승유(경영61) 하나금융지주 회장, 어운대(경영63)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교우 1400여 명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뤘다.

오후 5시 30분경부터 행사를 찾아 온 교우들은 이양섭 회장을 중심으로 한 교우회 회장단의 영접을 받으며 입장하여 선후배간 따뜻한 신년 덕담을 나누었다.

참석 교우들은 지난해 교우회 활동상을 담은 동영상을 보며 삼삼오오 모여서 준비된 음식을 먹으면서 그랜드볼룸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채웠다.

사회를 맡은 김현옥(서문90) KBS아나운서가 행사를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건네라고 말하자 참석 교우들은 서로서로 뜨겁게 포옹하며 환한 웃음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6시 10분에 시작한 본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이양섭 교우회장 신년사, 김병철 모교 총장 축사, 영진축하패 수여, 교가와 교호 제창, 축하떡커팅, 축배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양섭 교우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교우회는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회장 선출 제도를 2년 중임제에서 3년 단임제로 전환하였으며, 단과대학 교우회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교우회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한 후 “올해

는 교우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매 학기 300명의 재학생에게 12억 원 지급을 목표로 온 힘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히며 참석 교우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김병철 모교 총장은 축사에서 “어려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사회로부터 고려대학교가 큰 사랑을 받을 자격 또한 30만 교우들께서 쌓아주셨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한 후 “올 한 해에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고향인 고려대학교에 거는 기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해 본격적인 대도약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영진교우들에 대한 축하패 수여에 이어 교우들은 교가 제창과 홍용택(재료공71) 교우회 교우협력국장의 선창에 맞춰 힘차게 교호를 외쳤다.

주요 내빈들의 축하떡커팅과 축배제의를 끝으로 본행사를 마친 후 참석 교우들은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간의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신년을 맞이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교우회관을 벗어나 열린 신년교례회였다.

교우회 100주년을 보낸 후 열린 2008년 신년교례회에는 당시 이명박(경영61)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해 화제를 모았었다.

금년 신년교례회는 2008년과 비슷한 1400여 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여 지난해 교우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갈등을 이겨내고 새롭게 화합하고 친목하는 교우회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모교 소식

우즈베키스탄 학술대회 열어



고려대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2월 8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데미단 호텔에서 KOICA-고려대학교 한국어 국제 컨퍼런스 “꿈을 이루어주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존에 KOICA가 진행해 온 한국어 연수의 성과를 점검하고,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류·한국어 열풍을 어떻게 하면 지속·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월 9일 개막한 컨퍼런스에는 장대완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 아르두라힘 만나노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동방대학교 총장, 송향근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김정숙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조규형 고려대 국제어학원 원장, 신윤경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교육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주변국의 한국어교육 관계자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 문화·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어 10일에 진행된 컨퍼런스 이튿날 행사에는 송향근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의 한국어 교육 정책관련 특강, 김정숙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의 최신 한국어 교

수법과 연구의 흐름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이어 현지 대학교, KOICA 한국어 봉사단,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송금숙 전임강사의 한국어 시범 수업이 진행됐다.

한국어교육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종일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후에는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진로가 선택 가능하며, 이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현지에서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취업 정보도 나누어, 본 행사가 단순히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및 경제면에서 한국과 현지인들의 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장이 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류·한국어 열풍을 확인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 가 됐다.

현지 관계자는 “본 컨퍼런스는 기존의 컨퍼런스와 달리, 한국 내의 한국어 전문가들과 현지 한국어 전문가, 그리고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고 평가했다.

앞으로 고려대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지속적으로 중앙아시아지역 한국어 보급과 확산에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유럽 · CIS · 중동 · 아프리카 지역

교우를 찾습니다

“교우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예회원으로 모십니다

귀국하신 교우를 “명예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교우와 명예회원을 찾아 주시어 교우찾기운동 본부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49 178-580 4281 · E-mail : www@kuaa.eu

영국교우회장 인사드립니다

이충근 (경영 82)
 신임회장

금년 영국교우회 운영을 맡게된 이충근 인사 올립니다.

2009년 유럽총연합회 창립과 더불어 양해경 회장님 및 유럽총연 임원진의 성원하에, 저희 영국교우회는 신동훈(경계 79), 문정주(경영81), 김형채(정의 82) 세 전임 회장님과 임시창(철학 69) 선배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고국에 계신 정기행(경영73), 이일표(무역 76) OB 교우회장 및 집행부 그리고 소속 교우의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활동으로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이끌어 온 영국 교우회의 회장을 맞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영국 교우회는 70년대 초 최원중(사학60)과 권오덕(법학64) 교우들께서 학업 및 취업 차 런던에 오시면서 결성돼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70여명의 교우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우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영국 교우회 고문과 유럽총연합회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임시창(철학69) 교우께서는 개인 사업이 외에도 '아버지 학교'를 통해 교우뿐만 아니라 영국 내 교민들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교민사회에 봉사 활동의 훌륭한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글로벌 고대'의 기치아래 시작되었던 재학생들의 영국 대학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서 매년 40여명의 학생들이 영국 내 유수의 명문대학들(University of London-Royal Holloway, University of Birmingham, SOAS)에서 공부하고 있고 영국교우회에서도 이들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영국교우회 소속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모두가 일체감을 느끼는 교우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 '찾아가고 싶은 교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영국 교우회를 대표해서 유럽총연합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영국교우회 회장직을 마치며

김형채 (정의 82)
 전임회장

지난 1년 영국교우회 회장직을 교수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우애에서 우러난 봉사에 힘입어 대과없이 마치게 되어 먼저 영국교우회 교수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교수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협조에 진한 교우애를 느낄 수 있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든 정성을 아끼지 않는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깊은 모교사랑과 30여년이 넘는 영국 교우회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과 교환학생을 통해서도 모교와 교우회의 희망찬 미래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영국 교우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영원한 교우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유럽총연합회 친선골프대회도 무척 감동적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유럽 각국과 멀리 러시아에서까지 참가하여 서로간의 교우애를 확인하는 자리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해경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럽총연을 통해 영국에 국한되었던 영국교우회의 활동이 유럽 및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교류의 장을 넓힐 수가 있었으며, 유럽총연의 활동과 뉴스레터를 통해 이들 지역의 교우활동도 알게되어 저희 영국교우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충근 신임회장에게 회장직을 넘기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도 영국교우회 및 유럽총연합회의 활동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국교우회

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70년대 초 설립된 저희 영국교우회는 그동안 교우님들의 뜨거운 모교사랑으로 무럭무럭 발전하여왔고, '글로벌 고대'의 기치아래 시작되었던 재학생들의 영국 대학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60년대 학번 선배님들과 2000년대 새내기 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며 교우회 모임에 모

교우동정

- ▲ 윤진식 (경영 67) 명예회원 : 전 OECD 대사와 산업자문부장관이며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윤진식 명예회원이 21세기 통일연구원을 개설하고 원장에 취임했다.
- ▲ 최신목 (금속 69) 명예회원 : 전 대우 베를린 지점장으로 현재 가이어 그룹 회장인 최신목 교우회 부회장은 교우회 장학사업 확대에 호응하여 개인 명의장학금을 출연.
- ▲ 서진원 (사회 70) 교우 : 신한은행장인 서진원 교우는 2월 중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영국 런던을 방문하였다. 서 교우는 2월23일 3년 임기의 은행장에 연임되었다.
- ▲ 정재근 (행정 79) 명예회원 : 전 주독공사 겸 베를린 총영사이며 독일교우회 베를린분회회장인 정재근 교우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세제국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영진.
- ▲ 김용학 (영교 82) 교우 : 헝가리교우회 회장을 역임한 김용학 교우는 지난 12월 한국타이어 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한 후 1월부터 한국타이어 유럽본부 (독일)로 영진.
- ▲ 박대근 (불문 03) 교우 : 스웨덴 교우회 박대근 교우는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다 1월 21일자로 한국으로 귀임하여 원대복귀 하였다.
- ▲ 강성진 (법학 96) 교우 : 벨기에 브뤼셀 로펌 Cleary Gottlieb에서 활동하던 강성진 변호사가 1월부터 한국 LG그룹 법무실로 스카우트되어 자리를 옮겼다.
- ▲ 박주영 (체교 94) 교우 : 영국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에서 활동하는 박주영 교우가 2월 22일 노리치시티와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 하였다.
- ▲ 차두리 (신방 99) 교우 : 영국 프리미어리그 셀틱에서 활동하는 차두리 교우가 축구전문매체 골닷컴의 아시아선수 1월의 베스트 11에 선정되었다.
- ▲ 터키교우회 : 이정각(경영 88) 교우는 한국으로 박종철(컴퓨터 96) 교우는 독일로 진출하고, 최구만(경영 89)교우, 이준호(독문 96) 교우가 새로 전입했다.



주희정 (법학 03)

유럽에 계신 여러 선배 후배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법학과 03학번 주희정이라고 합니다. 저를 '고려대학교 교우'라고 소개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 정말로 감사 드려야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을 스치듯이 교환학생으로 지난해 외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교포 2세를 '교우'로 환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시는 여러 선배님들은 물론이고, 독일로 교환학생을 나와 만나게 된 여러 후배님들까지 저를 진정으로 선배로 인정해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정말 고대생이었고, 진짜 고대 교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도 '고대 교우'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와 고려대 중에서 제가 가게 될 대학교를 제 의지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고대 사람들이 더 정이 많고 더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로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고대로 결정하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러한 제 결정은 후회하

고대가 맺어준 평생 인연

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비록 길지는 않지만 제 삶을 통틀어 손에 꼽을 만한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고려대학교'는 단지 1년간 교환학생으로 시간을 보낸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Bonn 대학 법학과에 재학하며 가지게 된 교환학생의 기회를 통해 1년 간 준비하여 2006년 2학기부터 시작한 1년의 교환학생 기간을 통해 소중한 한국의 친구들을 만

는 잊을 수 없는 프로젝트를 통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고대와의 인연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셨던 선배님들의 표정과 말씨들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그때의 감동이 살아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고대가 맺어준 저희 커플의 인연이 100%의 고대 가족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도 고대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연전과 야유회나 송년회 등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할 시간들과 새롭게 만들어 갈 추억들을 기대합니다.

고대라는 이름으로 어디에서든 언제나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합니다. 다만 제가 선배님들께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데 여러 선배님들께서 제게 주셨던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을 따라 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 역시 고대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고대 교수간의 사랑과 정을 잃어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이 글을 읽어 주신 교수님들과 모두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수님들의 건강과 안일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 수 있었고,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다룬 후 독일 교우회에 참석하여 여러 선배님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제가 평생을 함께 할 사람과의 인연도 고대가 맺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아니나 1년간의 교환학생 기간 중에 듣게 된 수업에서 법대 98학번인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그러한 의미를 이어가고 싶었던 남자친구가 지난 2011년 송년회의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저에게



김세원 (불문 79)

“당신도 가톨릭이라니 더 잘 이해를 하겠군요. 지금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매일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소수의 의인들 덕분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환경을 훼손하고 인류는 신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거리낌없이 파괴해 왔습니다. 서기 2000년이 되기 전 밤같은 낮이 사흘동안 계속되면 그것이 곧 종말의 전조입니다. 밤같이 어두운 낮이 오면 창문과 문을 닫고 촛불을 켜놓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프랑스 월드컵 개막식이 열린 1998년 6월10일 파리행 대한항공 비행기 안, 옆자리에 앉은 벨기에 할아버지는 불어가 통한다고 끊임없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피눈물 흘리는 성모상의 기적으로 유명한 전라도 나주를 단체방문하고 귀국하는 길이라는 그 노인은 기도만이 신의 징벌로부터 세계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표정은 온화하고 말투는 부드러운 경고를 담은 그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아도 온갖 상념으로 뒤엉킨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파리 주재 유럽특파원으로 부임하러 가는 길. 당장 프랑스 월드컵을 어떻게 취재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과 동아일보 최초의 여자 해외특파원이라는 중압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뒤섞여 그렇잖아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게다가 형제자매가 없는 필자는 80에 가까운 부모님과 초등 학교 2학년인 아들까지 동반해야 할 형편이었다. 회사에서는 여성에다가 부양가족이 줄줄이 달려있는데 제대로 특파원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1997년부터 엄습한 이른바 ‘IMF(국제통화기금)한파’로 온 국민이 허덕이며 졸라매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언론사도 예외가 없었다.

특파원 예산이 삭감되어 독일과 영국의 특파원을 없앤 것은 물론 파리의 사무실도 처분하여 자택근무를 하면서 전 유럽과 중동 이슈를 담당해야 하는 처지였다.

매일 오전 침대방에서 일어나

유럽총연합회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교우들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고 이들 교우간의 교류를 위하여 ‘교우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 교우 릴레이는 글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유럽총연합회 교우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김인홍 교우, 영국의 임시창 교우, 프랑스의 신근수 교우, 러시아의 이세훈 교우, 스웨덴의 유명연 교우, 오스트리아의 김신자 교우, 터키의 김성렬 교우, 남아공의 민경준 교우, 쿠웨이트의 박정길 교우, 의정부지검 검사 우남준 교우, 프랑스의 서정호 교우, 독일의 박돈희 교우, 네덜란드의 김영원 교우, 프랑스의 김재호 교우, 우크라이나의 박승현 교우, 전 독일교우회장 오성덕 교우, 나이지리아의 정병훈 교우에 이어 전 동아일보 유럽특파원이며 현재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세원(불문 79)교우가 바톤을 이어 받았다.

세수하고 양복을 입은 후 컴퓨터가 설치된 옆방으로 출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할 정도였다.

파리 15구 펠릭스 포르가에 있는 사택에 짐을 풀기 무섭게 월드컵 취재에 나섰다. 한-네덜란드전이 열리는 마르세유로, 한-벨기에전이 열리는 파리 교외의 파크 드 프랑스 경기장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그런데 필자는 축구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스포츠관람을 혐오하는 전형적인 한국 여자. 즉 구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한 것은 대학시절 고연전이 마지막으로 그때도 경기보다는 응원에 관심이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엔 남북한 축구 경기라도 볼 것을. 후회가 막심했다. 돌이켜 보면 전반전 후반전 프리킥 같은 축구용어를 불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제프 블래터 FIFA 사무총장과 장뤼크 블랑에 벨기에 총리를 인터뷰하고 월드컵 관련 기사를 썼는지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1998년 6월10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동아일보 파리주재 유럽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보낸 3년20일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월드컵과 종말론,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파원으로서 처리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월드컵이었다면 두 번째 큰 사건은 세 번째 밀레니엄의 도래였다.

98년부터 에펠탑과 샤키오궁 등 파리변화가에는 2000년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었다. 한 백년도 아니고 한 천 년을 마무리하는 시기니 만큼 유럽의 미디어들은 20세기, 나아가 두 번째 천년 기간 동안 인류의 업적과 공과를 정리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실현된다는 종말론이 난무했다. ‘The End of the Days’, ‘Stigmata’ 같은 할리우드의 종교영화가 극장가를 점령했다.

“1999년 7의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양골무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라는 15세기 프랑스의 점성학자 미셸 드 노스트라다무스의 사형시 덕분에 1999년이 되자 프랑스 전역에서 종말론은 절정에 달했다.

오토쿠튀르 디자이너면서 점성술사를 자처한 파코 라반 같은 이는 하늘에서 불길의 떨어져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의 세 도시가 파괴된다는 예언을 했다. 게다가 하필 1999년 8월 11일 대규모 개기일식이 발생해 유럽 일대를 덮었다. 구정에서 나눠준 태

얼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3년 연속으로 참석했던 일은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1999년1월 비행기로 쿼리히에 도착해 다보스행 셔틀버스에 탔다. 엄청난 폭설로 열댓명 쯤 되는 일행은 꼼짝없이 버스에 갇히게 되었다. 옆자리에 앉은 흑인 신사와 수인사를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올레소 잉카라고 했다. 어쩐지 이름이 낯익다 싶었는데 알고보니 그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나이지리아의 작가였다. 남아공의 인권운동가이거나 케냐의 국회의원일 것이라고 상상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버스에서 일곱 시간쯤 함께 보낸 승객들은 예사 관광객이 아니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무총장, 미국 경제전문잡지 포브스 발행인, 뉴스위크 사장, 일본의 과학자 등 거물일색이었다. 셔틀버스에서의 조우는 서곡에 불과했다.

다음날 회담장인 콩그레스센터에 들어서자 한동안은 발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회담장은 당시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테드 터너 CNN설립자 겸 회장, 조지 소로스 퀴텀펀드 회장, 마하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총리, 자크 아탈리 (프랑스 석학) 등 세계적인 명사들로 가득했다.

평생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글로벌 뉴스메이커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끊임없이 뉴스를 쫓는

것이 생명인 뉴스메이커가 거물 뉴스메이커들의 회담장 한복판에 갑자기 들어서게 되었으니 그 행복한(?) 충격이란 필설로 형언할 수가 없었다.

다보스포럼의 출입증은 오렌지, 스카이블루, 화이트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화이트는 매년 연회비 4만2500스위스프랑(약 5200만원)에 포럼 참가비로 1만8000스위스프랑(약 2200만원)을 납부한 정회원과 초청받은 명사, 스카이블루는 행정스텝, 오렌지는 필자처럼 정식 초청을 받지 못한 기자나 부패이나 수행원용이다.

엄청난 비용으로 운영되는 돈잔치인만큼 출입증 색깔은 곧 계급이다. 오렌지칼라는 방공호를 개조한 지하의 기자실과 전체회의장, 미디어센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일주일 남짓 계속되는 회의기간중 목요일 저녁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갈라파티가 열린다.

어느해인가 갈라파티에서 러시아 열린대통령 때 총리를 지낸 키리렌코와 트로이카 다이알로그 회장을 만나 같이 어울리고 춤도 추었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회환유기로 인해 예산이 많이 깎여 어시스턴트 없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기가 벅찰 때가 많았다.

그럴 때 재물 고대교우회와 한인성당의 신우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에펠탑 근처의 삼호식당에서 한 두 달에 한 번 씩 모여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모임 말미에 가끔 ‘입실렌트 체이흥’을 우렁차게 외치다 보면 마치 서울에 가 있는 듯 했다.

귀국한지 어느새 10년, 파리에 있을 때는 틈만 나면 프랑스식 행정절차의 비효율성을 비판했었는데 가끔 파리의 뒷골목과 가난한 예술가들의 스튜디오와 그로운 걸 보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 전 동아일보 파리주재 유럽특파원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교우 릴레이(18)

파리주재 유럽 특파원 시절

양관찰용 종이안경을 쓰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보는 소동을 벌였다. 개기일식이 바로 밤같은 낮이 아닌가? 벨기에 할아버지의 예언이 떠올라 마음이 켄겼지만 다행히 일식은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매일 시사뉴스 관련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 더타임스와 르몽드의 국제뉴스를 열심히 읽으면서도 눈길은 저도 모르게 어느새 엑소시즘, 메우고리에 성모 마리아의 발현 같은 초자연 현상을 다룬 르피가로의 종교란에 머물러 있기 일쑤였다.

1999년 12월31일 밤11시59분 수천개의 등을 달아 휘황찬란하게 반짝이는 에펠탑 주변은 이미 몰려나온 인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3.2.1.0’ 수 천 명의 사람들과 목소리를 합쳐 카운트 다운 숫자를 외치며 세 번째 천년을 맞이하던 그 순간의 감흥은 아직도 생생하다.

사실 한 천년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풍경을 예스테리즘의 본 고장이랄 수 있는 프랑스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를 모르던 유럽과 유럽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에 가톨릭 신자인 것도 행운이었다.

매년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스위스의 산간휴양지 다보스에서



유럽특파원 시절 파리의 스튜디오에서